아이들의 꿈과 세상을 이어주는 놀라운 체험 - 자유학기제로 만나는 행복한 학교

37 9 9 2015.02 9

• 자유학기제 온라인 종합지원시스템 인천광역시교육청

● 지구라는 별에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꿈을 찾아라 **송승환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문화예술대학 학장**

● 꿈을 타고 하늘을 날다조율현 조종사

● 학생들에게 성숙할 시간을 선물한다 **아일랜드 전환학기제 탐방기**

● 다양한 꿈을 경험하는 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키자니아



교류 인프라의 도시, 인천 자유학기제로 도시와 농산어촌을 함께 품다



전국 최초 온라인 협업시스템 도입··· 자유학기제 운영 위한 교사들 수고 덜어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청연)은 지난 1월 23일 자유학기제와 학생 독서활동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학생이 행복한 인천교육과 우수 문화도시 구현이 목적인 이번 협약은 인천지역 학생의 진로·문화 체험 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뤄진 조치다.

이 체결로 인천시는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해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에 힘썼다. 지역 내 기업·공 공기관·사회시설 등 체험처 및 각종 행사정보 제공을 통해 학생 참여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인천 시교육청은 지역공연, 전람회, 시설체험 프로그램 등에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홍보하고, '2015년 책의 수도 사업' 등 인천시만의 독서활동 관련사업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아이들을 위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다양한 협력으로 체험처 기반 구축을 위해 뜻을 함께한 것은,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인천시교육청의 강력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업무협약 체결을 마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더 이상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며 인천 교육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문현답(愚問賢答)! 우리 교육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인천은 전국 최고의 집단 지성들이 모여 있는 도시입니다. 그들이 만든 교육 인프라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와 농산어촌이 함께 모여 있고, 그 자연환경을 잘 활용하여 우리 인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시 전체가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운영 결과 학교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중점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는 이 교육감의 말대로 인천교육은 자유학기제를 위한 4개의 연구학교와 선 도교육지원청인 강화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인천시교육청은 자유학기제 성패가 오전의 공통과정과 오후의 자율과정이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장학지원단을 통한 학교 컨설팅에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 취지를 살려내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 자유학기제에서는 교육과정의 자율적 편성이 주어지지만 자유학기제 만이 갖는 자율과정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적성과 희망을 고려한 자율과정 편성이 이뤄지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본 것이다

2014년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32개교의 평균 자율과정은 진로탐색과 선택프로그램이 주당 각각 3.5시간이고 평균 자율과정 운영 총시간은 주당 12시간으로 집계되었다. 서은희 장학사를 통해 2014년 인천의 자율과정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자율과정은 '진로탐색+학생선택프로그램 중점 모형'이다. 인천시의 자유학기제는 이렇게 교육부 주관으로 교육청별, 학교별로 처한 상황과 학생의 희망과 적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시범운영이 되고 있다. 2013년 연구학교로 인천의 첫 자유학기제를 시작한 부평동중학교(교장 이상복)은 진로탐 색활동 및 인성 교육을 잘 구현하여 전국 자유학기 운영학교의 귀감이 되고 있다. 영종중학교(교장 김 동환)은 섬 지역에 위치해 인프라 부족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성 중심의 선택프



이청연 인천시교육청 교육감

로그램을 개발했다. 인프라가 부족할 경우에도 가동할 수 있도록 학생선택프로그램 중점 모형을 개발해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됐 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인천의 자유학기 선도학교들은 미래학교, 행 복학교, 아름다운 학교등에 선발되는 영광을 누렸다."

2015년 운영 준비 내용-

교사 협력 위해 '자유학기제 온라인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2014년 1월 강화교육지원청은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강화군청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를 시작으로 2015년 1월 말까지 인천시교육청과 산하 모든 교육지원청이 자유학기제 체험인프라 발굴 지원을 위해, 시·군·구청과의 교육협력 관계를 성공적으로 맺었다.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는 인적 물적 자원확보 등 세부사항에 관한 모든 협의를 마친 상태로 2015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강화교육지원청은 산하 10개의 중학교를 모두 참여시키기 위해 '두레 교육과정'을 도입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소규모 학교가 모여 있는 강화교육지원청의 중학교들을 더불어 성장시켜 소외되는 학교가 없도록 '더불어 운영하는 자유학기제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자유학기제의 운영으로 교사들의 업무가 증가되었다는 지적이 생겨나기도 했다. 이런 지적에 따라 교사업무 경감을 위해 '자유학기제 온라인종합지원시스템' 운영으로 교사간 협업을 장려하고 학생들의 프로젝트 융합수업까지 지원하는계기를 만들었다. 강화중학교(교장 감한룡)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다. 교사와 학생간 편리한 업무와 학습을 위해 도입한 'SEM(Self Education Management Planner) 학습 협업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강남중학교(교장 한상선)도 빼놓을 수 없다. 학생 스스로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도록 개발한 인성 프로그램 '나는 행복 Maker'와 '갑비랑의 행복 스토리 134')을 스마트 클래스(협업 프로그램) 방법으로 활용한 수업은 강남중만의 남다른 자랑거리다.

2016년 전면 추진을 앞두고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산 지원 문제, 체험처 확보 문제,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 등이 그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이를 염두에 두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모두가 꿈을 찾는 인천 자유학기제'의 설계를 마친 상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한 꾸준한 연수가 뒷받침이 되도록 자유학기제 장학지원단, 진로체험지원단이 중심이 되어 끊임없이 노력중이다.

인천광역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자원지도 매뉴얼

인천시교육청에서는 단위 학교 교사들이 창의적 체험활동과 진로체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을 돕기 위해 참고자료를 총 네 분야로 구성해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돕고,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을 지원하고 있다.



분야1 |체험 자원 안내 책자

창의적 체험활동과 진로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각 종 자원에 대한 소개로, 인천관내 및 인접지역 총 60군데의 체험처에 대한 안내를 담았다. 기관 사

진, 찾아가는 길, 세부체험프로그램, 관련 진로분야에 대한 소개를 통해 보다 손쉽게 창의체험 활동을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분야2 | 대형 지도

단위 학교 교사가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인접지역의 기관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도 상의 위치와 거리를 파악하기 쉽게 제작했다. 학교 밖 체험활동의 경우 인근지역의 기관들을 묶어 활

동한다면 같은 시간에 보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분야3 |체험 자원 활용 핸디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사가 학생을 인솔하는 학교 밖 현장에서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각 기관에 대한 주요 안내 사항만을 간단하게 제시한 핸디북이다.



분야4 ICD

분야를 CD형태로 만든 것으로 지역, 인원, 운영시기, 참가비 등을 선택하면 그에 맞게 자동 정렬되는 기능이 있다. CD를 컴퓨터에 삽입하면 프로그램이자동으로 실행된다. 클릭하면 교사의 기획 의도에

부합하는 기관이 정렬되고, 각 기관명을 클릭하면 기관 안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꿈이음〉은 서은희 장학사의 도움으로 인천시 자유학기제 체험처 인프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체험지도를 준비했다. (별지 참조)

농산어촌 학교 소외 없는 협업 시스템으로





두레자유학기제를 만들다





강화도 중학교들을 방문하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다. 자유학기제 현수막이다. 강화의 중학교들은 이미 자유학기제를 100% 시행 중이다. 지난해인 2014년부터다. 교육기부를 통해 만들어진 현수막에는 '나의 꿈 나의 끼를 찾아 떠나는 자유여행, 자유학기제' 한 학기의 자유로 한평생의 좌표를, 자유학기제' 등 다양한 슬로건과 함께 각 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 방향이 실려 있다. 강화도 어느 곳이나 자유학기제 바람이 부는 것이다.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정원화)도 마찬가지다. 〈꿈이음〉이 찾아간 지난 1월. '갑비랑(강화도의 옛 이름인 갑비고차에서 나온 말로 강화의 아이들을 뜻한다)의 행진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 강화두레자유학기제'라는 현수막이 그곳에 걸려있었다.

2014년 9월에 부임한 정원화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은 "OECD 국가 중 수학·과학 지능은 높지만, 상호작용능력과 협업능력은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 협력하는 행복 강화교육 을 경영지표로 삼아 '강화두레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꿈이음〉은 강화교 육지원청이 말하는 자유학기제의 본질과 두레자유학기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강화교육지 원청을 세심하게 둘러보았다.

강화도 중학교들의 자유학기제를 이해하려면 이곳이 농산어촌 학교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 강화의 중학교 수는 10개, 이 중 강화중학교와 강화여자중학교를 제외한 8개 학교는 전교생이 50명 안팎인 소인수 학교에 속한다. 작은 학교의 아이들이지만 큰 학교 못지않게 다양한 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학생 인원수가 적어학년 단위로 다양한 진로·직업체험 활동을 하기에 어렵다. 강화교육지원청의 고민은 깊어만 갔다. 언제까지 농산어촌의 열악하고 부족한 교육 여건을 탓할 수는 없었다. 학생들에게 여러 교육과정을 구성해 선택권을 주기 위해선 오랜 준비기간도 필요했다. 그렇게 약 1년에 걸쳐 준비한 '강화두레자유학기제'가 탄생했다.



정원화 인천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두레로 모인 농산어촌 작은 학교··· 공동교육과정 편성으로 한계성을 극복하다

두레자유학기제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에 적합한 자유학기제 운영 모형으로, 적은 학급수를 가진 강화에 알맞다. 농민들이 농 번기에 농사일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 부락이나 마을 단위로 만든 조직을 의미하는 '두레'는 농산어촌 지역의 특색이 짙은 강화도와 잘 어울리는 단어다

먼저 강화교육지원청은 자유학기제의 목적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직접 개발했다. 10개 학교를 위해 공동교육과정을 편성한 것이다. 공동교육과정은 프로그램마다 각각의 특색이 있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성과 태도를 길러주는 '온리원 나의 자서전' 프로그램은 학생의 진로탐색 교육을 위해 힘쓴 결과물이다. 인문사회 선택프로그램으로 만든 '나는 행복 Maker'도 눈길을 끈다. 행복의 의미와 능력의 이해를 결합시킨 프로그램으로, 행복은 자신의 관점을 바꾸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에 중점을 뒀다. 이를 점진시키기 위해 '갑비랑의 행복 STORY 134'를 개발했다. 행복을 습관화할수 있도록 훈련과정을 마련한 것이다. 공동교육과정 편성으로 학생들의 진로교육 과정이 단계마다 질이 높아졌고, 교사들은 교육자료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면서 업무 부담이 완화됐다.

더불어 모든 학교를 5개 권역별로 나눈 것도 특징이다.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이들의 선택권을 최대한 확보했다. 한 권역으로 묶인 학교들은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그중 제 3권역의 학교인 강남중학교, 동광중학교, 심도중학교의 진로체험과 동아리활동은 강화두레자유학기제의 대표적인 사례다

3권역에 속해 있는 강남중학교와 동광중학교, 심도중학교의 2학년 학생 수는 71명이다. 세학교의 학생들은 목요일마다 담당학교에 모여 진로체험 동아리를 실시한다. 한학기 34시간 동안 17번의 체험을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진행한다. 동아리 프로그램은 제과제빵, 요리, 바리스타, 통기타, 교육마술, 악기연주, 창의미술등의 7개로 구성했다. 1지망, 2지망으로 선택이 가능해 3권역의 학생들은 14개의 동아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세 개의 학교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려면 소통이 필요하다. 세 학교의 교무부장 교사들의 열정이 크게 작동했다. 체험활동을 진행하는 강사가 혼동되지 않도록 출석부를 하나로 통일해 혼선을 줄인 것은 물론, 시간을 맞추기 위해 점심시간도 같은 시간으로 통일했다. 사소한 일에도 일일이 연락해 보고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물해주고픈 스승들의 노력이 모인 결과다.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현황

학교명	교원수	학급수		학생수		모형
		전체	자유	전체	자유	±8
강화중	35	19	6	584	212	예술체육+동아리
강화여중	33	19	6	569	222	진로탐색+동아리
강남중	16	6	2	122	35	예술체육+동아리
강서중	11	3	1	38	11	진로탐색+예술체육
심도중	11	3	1	59	18	진로탐색+예술체육
교동중	7	3	1	45	16	예술체육+동아리
서도중	10	3	1	9	4	예술체육
동광중	10	3	1	48	20	예술체육+진로탐색
삼량중	6	3	1	44	20	예술체육
삼산승영중	10	3	1	58	17	진로탐색+예술체육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

권역	학교	프로그램		
1	강화중	예술체육		
2	강화여중	예술체육		
3	강남중, 동광중, 심도중	예술체육, 동아리		
4	강서중, 교동중, 삼량중, 삼산승영중	동아리		
5	서도중	자체 운영		

강남중 동광중 심도중 3권역 교육과정(자율과정)





충주교육지원청 자유학기제 지원단이 강화교육지원청에서 연수를 받고 있다.

학교의 중심은 학생이지만 학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사죠. 교사의 움직임에 따라 학교가 달라집니다.



또한 자유학기제가 발전적으로 확산·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매핑 (Mapping) 기반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교육지원청과 교사들 간에 업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협업시스템 구축으로 교육지원청과 교사들은 시각적 문서공유시스템을 활용해 자유학기제에 관련한 공통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등 시간의 효율성도 제고했다.

두레교육과정은 강화교육지원청이 자유학기제를 구축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책이다. 열악한 환경의 단점을 연구해 효율성을 높였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소문을 들은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덕진)에서 방문을 원했다. 충주자유학기제 지원단 및 핵심교원인 관내 중학교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교감, 업무담당부장 및 진로진학 상담 교사 등 80명이 다녀갔다. 2014년 12월 8일부터 이틀에 걸쳐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 역량강화 연수를 받기 위해 방문단이 파견된 것이다. 진로와 적성에 맞는 '행복한 교육'이 널리 전파돼야 한다는 강화교육지원청의 두레 정신이 돋보인 사례였다.

10명의 교무부장이 한 학교처럼 뭉친 강화도 중학교들 강화교육지원청과 손잡고 교육 공동체 역량 키우다

앞서 교무부장 교사들이 하나로 뭉치는 덴 강화교육지원청의 노력이 컸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도 학교의 변화 속도는 느린 편이다. 학교가 긍정적으로 변하기 위해 선 교사가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의 중심은 학생이지만 학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사죠. 교사의 움직임에 따라 학교가 달라집니다."

강화도 내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을 추진한 이미영 교육지원과장과 자유학기제 총괄을 담당한 송윤숙 장학사의 뜻은 한결 같았다. 이들은 강화 전체의 교사들을 설득해 강화 교육의 개선에 함께 힘을 기울였다. 10개 학교의 교무부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강화 교육의 발전을 위해 바쁜 시간에도 소통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지역이 넓은 강화도의 특성상 모이기가 힘들 땐 협업방을 개설해 서로의 생각과 자료를 공유했다. 단 한 번의 노력으로 변할 순 없었지만 시냇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서로의 시간을 쌓아갔다. 개선점이나 요구사항은 교육지원청에 도움을 요청했다. 교육지원청의 귀는 언제나 열려있었다.

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연수도 준비했다. 교과운영 과정, 평가운영 방법 등을 포함해 교사를 위한 다양한 연수를 마련한 것이다. 장학 지원단이 학교로 직접 찾아가 연수를 진행했으며, 선진 학교를 탐방하기도 했다.

학부모 연수도 활발했다. 아이들의 진로와 학습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학부모를 모집했다. 강화는 다른 지역에 비해 사교육의 관심이 비교적 낮고, 학교 의존도가 높 은 편이다. 이 바탕으로 'GPS(Ganghwa Parent's School) 학부모교사 과정'을 운영했다.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해 전체 학부모 연수를 실시했고, 학부모 총회를 위 해 업무담당 장학사가 직접 찾아가는 연수를 진행했다. 연수를 받은 만큼 교사와 학 부모의 변화가 많이 나타났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으로 돌아갔다.

좋은 시스템과 콘텐츠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결국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미영 과장은 "교무부장 교사들의 화합과 학부모의 참여가 없었다면 강화두레자유학기제가 안정적으로 자리하기까지 힘들었을 것"이라 말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앞으로 강화 자유학기제의 방향을 묻자 송윤숙 장학사는 "개발한 공동교육과정을 보완하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위한 체계적 연수를 진행해 강화 지역에 맞는 자유학기제로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위한 수식어로 '함께하다'란 단어를 강조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협력'이라는 단어로 바람직한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강화교육지원청, 2015년 자유학기제가 더욱 기대되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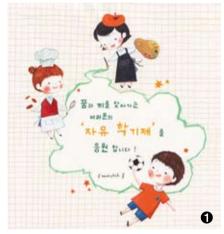
"रेर्द पा दें निर्धेष्ट्रमा!"



자유학기제 응원 웹툰 일러스트. ●모찌님 재능기부. ❷ Triangle 507 님 재능기부. ❸ NOT 님 재능기부.



왼쪽 윗줄부터 동광중 오학근, 교동중 권오경, 강화여중 조형규, 강화여중 고상현, 강남중 김효숙, 강화교육지원청 장학사 송윤숙, 강화중 오지영, 심도중 송연심 교사





수업이 달라져야

행복한 학교가된다

인문사회 선택 프로그램 '나는 행복 Maker'… 스스로 세운 목표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잘 다루는가 하는 점이다."

팔다리 없이 전 세계를 누비며 행복을 전하는 희망 전도사 닉 부이치치의 말이다. 수많은 대중 앞에서 꿈과 희망,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에선 장애를 찾아볼 수 없다. 세 번의 자살을 시 도할 만큼 절망의 시간 속에서 헤매던 그가 한계를 껴안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부모 님 덕분이었다. 닉 부이치치가 자신의 장애를 부끄러 워하지 않고 스스로 사랑하는 법을 터득하도록 한 것 이다.

인천 강화군 길상면에 위치한 강남중학교(교장 한상 선)의 고윤미 교사가 학생들을 대하는 자세도 꼭 그 랬다. 2014년 자유학기제를 첫 시행하면서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인 문사회 교과 수업을 구성한 것이다.

삶의 목적의식을 위해 행복을 가르치다

"오보에를 연주하는 시간이 정말 좋아요. 덕분에 학교생활도 즐겁고요. 이렇게 매일 매일이 행복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강남중학교 2학년 이수빈 학생은 예술체육활동 시간에 악기연주반을 선택하면서 오보에를 배우기 시작했다. 관심 만큼 배움의 욕심도 커졌다. 오보에를 연주하는 시 간이 많아졌다. 교내 축제인 송화제에서 오보에 연주도 했다. 첫 무대라 긴장됐지만 자신이 느낀 행복을 다른 이에게 전파하고 싶었다. 수빈이의 자존감과 행복감은 점 점 커졌다. 꿈도 생겼다. 바로 오보에 연주를 통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미래를 생각하며 '나의 행복 인생 곡선 만들기'에 자신의 꿈을 그래프로 표현했다.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 꿈이 세심해졌다. 오보에 연주자가 되는 것은 물론 어려운 사람을 위해 '찾아가는 작은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싶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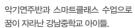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힘들 수도 있겠지만 포기하진 않을 거예요.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았거든요. 꿈을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미래를 꿈꾸는 수빈이가 당차 보였다.

수빈이 뿐만이 아니다. 강남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수빈이처럼 자신의 행복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 '나는 행복 Maker' 교육과정, '갑비랑의 행복 STORY 134' 프로그램으로 인무사회 선택과목을 배우면서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선택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다. '나는 행복 Maker'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행복을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첫 걸음입니다.





찾아주기 위해 강화교육지원청과 교사가 함께 만든 교재다 먼저 강화교육지원청에서 개발한 뒤 교사의 의견을 덧붙여 구성했다. 아이들은 이 프로그램으로 세 가지 이해력을 배 운다. 1~2주 차에선 행복의 의미와 조건, 성취방법을 영상 시청과 요약설명을 통해 배운다. 3~4주차에 접어들면 능 력의 개발, 주도적 태도, 인지적 태도 등을 배운다. 자신 의 능력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성의 이 해를 배운다. 감정 상태와 함께 인성의 3요소인 존중 정 의, 합리성을 분석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주제별로 경 험하는데 약 8주가 걸린다.

고윤미 교사는 '나는 행복 Maker' 프로그램이 자유학기제에 꼭 필요한 교과목이라 고 말하다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첫 걸음입니다. 그동안 개발한 선택 프로그램을 보면 거의 기능 위주였습니다. 기능을 배우기 전에 인문 · 사회적 관점에서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능적인 프로그램은 바른 인성이. 잡힌 뒤에 실행해도 늦지 않아요"

다음엔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가 고민됐다. 고윤미 교사는 주기적으로 학생들끼리 모 둠을 구성하도록 지도했다. 모둠 수업과 토론 수업을 위해 모둠 공책을 만들어 활용했 다. 아이들은 모둠 마인드맵 그리기, 모둠 신문 만들기, 모둠별 역할극을 통해 함께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고윤미 교사는 아이들이 조별로 진행한 모둠 활동을 보며 학 급 내 아이들과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그때 강화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스마 트클래스가 생각났다. 스마트클래스는 자유학기제에서 활용 가능한 수업 방법으로 손 꼽힌다. 시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수업에 참여가 가능해. 과제 수행 및 다른 모둠 활동 진행 사항을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고윤미 교사는 강화교육지원청에서 개발한 '갑비랑의 행복 STORY 134(이하 갑비



①인문사회 선택 프로그램 '나는 행복 Maker'의 스마트 클래스 수업내용, 매핑형식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장

나이 장 첫 만영 작산 만들기

❷'나의 행복 인생 곡선 만들기' 행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며 자신의 꿈을 그래프로 표현한다.

자유학기 인문사회 '나는 행복 Maker' 주차별 예시- 13주차

단원	대단원 3	인성의 이해		
	중단원	주제별 연구		
	소단원	절망을 희망으로 승화시킨 우정 영화 (언터처블 : 1%의 우정)(2012) 프랑스 드라마! 12세 이상 관람가!112분 감독: 올리비에르 나가체, 에릭 토레다노 출연: 프랑스아 클루제, 오마 사이		
주제	진정한 우정			
키워드	우정			
학습 목표	진정한 우정에 대해 생각해 본다. 서로 다른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우정의 자세를 알아본다.			

학생들에게 6개월 동안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했어요. 목표를 정한 뒤 그 목표를 위해 열심히 생활하도록 말예요.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한 세 번, 네 가지의 행복을 만드는 이야기를 찾자는 뜻으로 숫자 134 도 기록했다

일기가 일상적인 이야기라면 갑비랑 교재는 '자랑스러워' '행복해' '고 마워' '미안해'란 네 가지 테마로 글을 쓴다. '자랑스러워'가 앞에 놓인 이유다

"행복의 출발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행복을 알 수 있어요. 네 가지테마를 반복하면 아이들의 행복 감성지수는 높아집니다."

'갑비랑' 교재를 구성한 강화교육지원청의 송윤숙 장학사 의견에 따르면 행복도 훈련이 필요하단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습관이 행복지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갑비랑 교재를 활용하자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더 가까워졌다. 아이들은 갑비랑에 자신의 꿈을 적어놓는다. 앞서 이수빈 학생이 오보에를 좋아하는 것도 갑비랑을 보고 알았단다. 처음엔 쓰기 귀찮아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스스로 작성한다. 쓰는 양도 많아진다. 한 줄이 두 줄이 되고 세 줄, 네 줄로 늘어난다. 늘어나는 만큼 표현력도 풍부해 진다.

변화하는 자신의 모습 위해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아이들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동안 교실 안에 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바로 긴장감 없는 교실이 문젯거리였다. 고윤미 교사는 고민 끝에 '나 와 우리를 변화시키는 6개월의 계획'을 준비했다.

"학생들에게 6개월 동안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했어요. 목표를 정한 뒤 그 목표를 위해 열심히 생활하도록 말예요. 스 스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아이들은 무엇을 계획했는지, 그 계획을 위해 무슨 일을 했으며,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주기적으로 발표했다. 계획을 세웠으나 이루지 못했을 경우에도 발표하게 했다. 아이들에게 계획 실패에 대한 요인과 과정을 들으며 자신의 힘으로 깨우치게 한 것이다. 6개월 동안 변화할 수없다면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줬다.

김승하 학생은 '나와 우리를 변화시키는 6개월의 계획'에 봉사활동

100시간 채우기를 목표로 삼았다. 친오빠를 따라 봉사활동을 다니다 결심했다. 교 내 봉사활동이 아닌 교외 봉사활동이기에 일주일에 4시간 이상을 할애했다. 매달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100시간이 훌쩍 넘었다. 승하는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뤘지 만, 꾸준히 봉사활동을 했다. 점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 자 상을 받기도 했다.

"먼저 제가 계획했던 목표를 이뤘다는 사실이 가장 기뻐요. 솔직히 상을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지만 상까지 받게 돼서 뿌듯했어요."

승하는 학생회장에도 당선됐다. 대체로 남학생들이 학생회장으로 당선됐던 강남 중학교에서 여자 학생회장이 탄생한 것이다. 이례적인 일이었다. 근면 성실한 승하의 모습에 남 년 학생 구분 없이 모든 친구들이 인정을 한 셈이다.

여기서 머물지 않았다. 아이들은 수업시간에 지켜야 할 수업규칙을 만들었다. 규 칙을 어길 시에는 벌칙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정했다. 수업시간의 정확한 시작이 언제인지 고민한 적도 있었다. 오래 토론 끝에 수업이 시작되는 종소리가 울리고 선 생님의 입실을 수업시작으로 정했다. 규칙을 만들자 학생과 교사 모두 긴장감을 가 지고 수업에 임하기 시작했다.

인문사회 선택 과목을 접한 아이들이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자신 이 세운 목표를 반 친구들에게 발표하면서 자존감도 높아졌다. 발표하기를 꺼려했던 아이들도 스스럼없이 참여한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아이들은 꿈을 찾으며 또 다른 동기부여를 받는다.

이렇게 다양한 수업 프로그램을 구성한 고유미 교사의 인문사회 수업방식은 지난 해 11월 21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강화교육지원청의 '2014 시·교육지원청 자유학기 제 담당자 워크숍'에서 우수 수업사례로 선정되는 영광을 얻었다. 올해 2년 차 자유 학기제를 맞이하는 강남중학교, 인문사회 교과과정이 있는 한 여전히 맑음이다.

0 2. स्ट्रेसिना या अर्थन और जारे विश् रिक्रिंग उप्तरमान के व्यक्ताना 3. ADURTON the office of one the the grand upper 4. 관용 및 가고 St. 이는 어김 절 가지는 첫생×10회 엄섯다 5. 수업시간에 감당(장난)은 하지 않는다. 이는 어린 경우 않았다 악에났다 30년 NEW HOL 6. DAME IS SHEET WHITEN CHOSE SHIKE XIOINE SINEUCL 9.1 TH78

mini interview

김효숙 선생님/ 강남중학교 교무부장 교사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노력으로 다양한 교과과정을 개발하다

인문사회 수업도 중요하지만 다른 과목도 중요하다.

수학 담당교사다 보니 이 문제에 가장 근접해 있었다. 학부 모들도 국어, 영어, 수학 같은 주요 과목의 수업을 어떻게 진 행할지 가장 궁금해했다. 수학 수업시간에도 토론을 한다. 당연히 수학 교과 내용 안에서 진행한다. 2학년 2학기 수학 수업은 도형이 자주 등장한다. 조별로 도형을 만들고 의논한 뒤 발표한다. 기본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만 들어 본 뒤,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토론을 통해 스스로 알아 가는 과정을 체험하는 것이다. 아이들의 집중력이 좋아진 것 은 물론, 직접 도형을 만드니 창의력도 발전한다. 문제풀이를 할 때 이해력도 높아졌다. 자유학기제의 강점이다.

자유학기제 성공적 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 엇인가?

정보가 없으면 발전을 할 수가 없다. 학교 내부의 정보만으 로는 부족하다. 강화교육지원청의 자유학기제를 담당하는 장학사 님을 포함해 자유학기제와 연관된 모든 분들과 정보 를 공유한다. 또한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노력도 중요하다. 강 화교육지원청에선 다양한 교과과정의 개발을 위해 연구한 다. 앞서 진행했던 대부분의 인문사회 교과과정인 '나는 행 복 Maker'와 '갑비랑의 행복 STORY 134' 등의 교재는 강화 교육지원청에서 기획한 것이다. 학교는 이를 긍정적으로 활 용하면서 실무적으로 무엇이 부족한지 의견을 제시한다.

❸ 아이들이 스스로 세운 인문사회 수업시간 규칙.



SEM Planner,

스스로 기록하는 학교생활

SEM Planner 사용으로 기록의 중요성과 자신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다

자유학기제는 아이들에게 다른 학기에선 경험해 볼 수 없는 새로운 추억으로 남는다 그 경험은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는 데 발판을 제공한다. 이에 강화교 육지원청은 교사의 업무를 더하지 않고 자유학기제 가 발전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했다. 그 방안으로 'SEM Planner(셈 플래너)'라는 온라인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 교사와 학생에게 긍정적 인 평가를 받았다. SEM Planner는 Self Education Management Planner의 약자로 학생 스스로 학교 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매핑 기반의 웹 포트 폴리오 시스템이다. 학생들은 스스로 학교생활의 일 정과 절차, 결과 뿐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체 계적으로 기록한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개인별 상 황에 맞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방법과 스스 로 관리하는 습관을 배운다. 또한 매핑 기반의 시스 템 활용으로 미래핵심역량인 인지력 사고력과 시스 템의 사용 능력을 키운다.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 위 치한 강화중학교(교장 김한룡)는 이런 중요성을 인지 하고 SEM Planner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강화중학교 오지영 교사는 SEM Planner로 아이들에게 기록 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싶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기록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하루의 일정이 쌓이면 삶이 돼요. 크게 본다면 SEM Planner는 인생을 기록하는 프로젝트가 되는 셈이죠."

교사가 SEM Planner에 학교의 일정을 등록하면 학생의 Planner에 자동으로 연동된다. 학교와 개인의 일정을 함께 기록할 수 있는 것이다. 아이들은 자신의 일정을 스스로 체크한다. 예로 봉사활동 일정이 있다면, 학생은 봉사활동 프로젝트 화면을 클릭해 언제 어디서 누구와 활동했는지 기입할 수 있다. 느낀 점을 작성하거나 사진 자료 첨부도 가능해 체계적인 기록이 가능하다.

자유학기제를 접하는 아이들은 다양한 체험활동을 한다. 예전 과 달리 많은 체험활동으로 자신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놓치고 지 나칠 수 있다. SEM Planner에 체험활동을 기록하다 보면 자신 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소개서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처음 SEM Planner를 접했을 땐 힘들었어요. 매일 기록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으니까요. 2주가 지나자 SEM Planner로 기록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학교생활에도 큰 도움이 돼요. SEM Planner를 이용하기 전엔 오늘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던 날이 많았어요. 이제는 무엇을 했는지, 또 어떤 수업을 들었고 수업 내용이 어땠는지까지 알게 됐어요. 정리하는 습관도 생겼고요. 3학년이 되어도 쓸 예정이에요. 고등학교에도 SEM Planner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해 3학년에 올라가는 이래현 학생은 SEM Planner 사용으

기록을 한 아이와 안 하는 아이는 달라요. 매일 일기를 쓰는 것처럼 자신의 활동을 스스로 정리하죠. 이 자체가 아이들 본인의 삶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강화중학교 오지영 교사



로 '기록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

담임교사의 승인이 있어야 기록이 완성되는 에듀팟(Edupot)과 달리 SEM Planner 는 교사의 승인이 없어도 학생이 직접 저장할 수 있다. 시간대 별로 일정이 나뉘어 있어 구체적인 작성도 가능하다.

강화중학교 교사들은 수업시간에도 SEM Planner를 활용한다. SEM Planner를 통해 학생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과학을 담당하는 오지영 교사는 과학 실험 뒤 작성하는 실험보고서를 SEM Planner에 기록하도록 한다. 실험을 마친 아이들은 SEM Planner에 어떤 실험을 했는지, 주제가 무엇인지, 실험 내용과 과정을 기재한다. 바로 그 자리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오지영 교사가 태블릿 컴퓨터에 연결해 업로드 시키면 아이들의 의견을 그 자리에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바로 토론이 들어간다. SEM Planner를 사용하기 전엔 종이에 보고서를 작성했다. 실험 뒤 걷어서 채점만 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다음 시간에 보충 설명을 하면 어떤 실험을 했는지 기억 못하는 아이들이 있었다. 그랬던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토론하고 실험에 대한 개념을 잡아주자 학습 습득 능력이 좋아졌다.

SEM Planner의 활용으로 교사의 업무 부담도 줄었다. 생활기록부 기입의 부담이 사라진 것이다. 연말에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다보면 놓치는 것도 있고 틀리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SEM Planner를 활용하면 학생이 어떻게 학교생활을 했는지 정확히 알수 있다. 교사들의 작업이 빨라지는 것은 물론 오차 없는 생활기록부가 만들어진다.

교사와 학생간의 소통에도 영향을 끼쳤다. 강화중학교 학생들은 SEM Planner를 사용하면서 선생님과 가까워졌다고 말한다. 자신의 일정을 교사와 공유하며 꿈과 목표를 함께 써 내려가기 때문이다. 강화중학교는 2015년부터 학생의 SEM Planner 활용을 더욱 늘릴 예정이다. 자유학기제를 시행하지 않는 학년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 SEM planner 프로그램 메인화면.
- ❷SEM planner 활용 중인 이래현 학생과 SEM planner
- 를 기획한 강화교육지원청의 송윤숙장학사.
- ❸'폐모형 만들기' 수업 중, 실험 내용을 기재한다.



